

45

요셉의 시련과 존귀

창 39~41장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 184장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배울



1.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은 영광을 향한 통로임을 압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에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압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 37:28)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을 이해하기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았을 때에 얻은 아들이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자
답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를 시기하여 요셉을 20
에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
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느 날 평소에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요셉은 감옥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 온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알리고
요셉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에 바로는 요셉을 높여 애굽 총리대신으로
임명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흉년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 식
량을 공급하여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 뿐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
으로 이주하게 하여 기근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요셉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
운데 잘 보내었기에 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그것 자체만을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의 형편을 늘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터널과 같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 하였도다 (시 105:17~19)

He sent a man before them—Joseph—who was sold as a slave They hurt his feet with fetters, He was laid in irons Until the time that his word came to pass, The word of the LORD tested him (Ps 105:17~19)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요셉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단련하셨을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를 세 가지 적어봅시다(창 37: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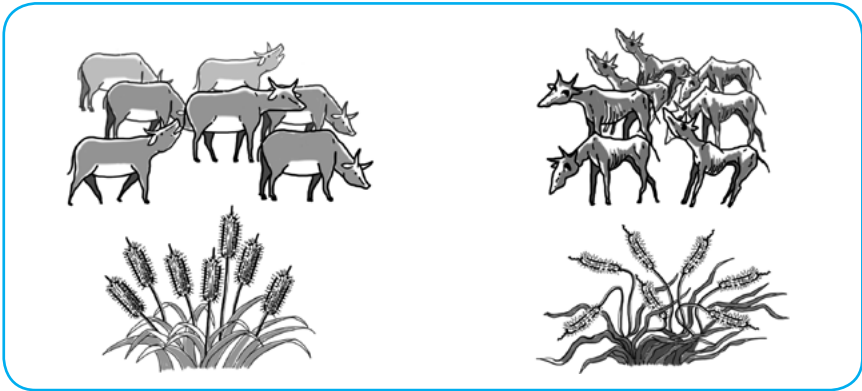
1)

2)

3)

2

요셉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성경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요셉의 해석 :

3

요셉과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해봅시다.

구분	요셉	예수님
1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여 받음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음 (창 37:3~4)	예수님은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미움 받음
2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림 (창 37:26,28)	(마 26:15)
3	(창 39:12~18)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고소한 뒤 감옥으로 보냄
4	(창 41:14)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5	(창 41:42~44)	(마 28:18)

4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는지 찾아 적어보고 내 마음과 비교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수 1:9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의

시 105:18~19

화

시 119:173

↑

시 121:1~2

무

시 123:1

미

사 41:10

트

고전 10:13



시련과 은혜

독일의 한 남작이 자기 성곽 두 탑의 끝을 여러 가닥의 철사줄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줄들에 바람이 부딪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대한 바람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기가 잠잠하고 조용했으므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미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 가닥의 가냘픈 음악소리가 이 바람하프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울린 것은 겨울날 거센 폭풍이 그 줄들을 휘몰아칠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장엄한 음악이 탑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그 아래 골짜기를 가득 메우곤 하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폭풍이 가장 거셀 때 울려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세차게 몰아칠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고난이 우리 삶의 줄들에 부딪칠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해 보려 애쓴 적이 있습니까?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에 시달려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로운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도록 이끄시게 하십시오.

시련과 고난은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침내 당신에게 풍성한 성취를 안겨 줄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겠네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2)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갈 사람이 없을 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 16:9)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끝까지 마귀를 좇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는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8)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형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고, 집행은 죽은 후에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그러므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즉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